

제73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21일)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

십장생을 찾아라!

곽신숙,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5월 2일에 특별전시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십장생도 병풍’ 한 점을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체험전시로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장수의 상징을 그린 ‘장생도長生圖’ 가운데 ‘십장생도十長生圖’는 궁중에서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바위, 불로초(영지버섯), 학, 거북이, 사슴 등 열 가지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회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십장생도에서 소재로 채택한 열 가지 자연물은 꼭 열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十’은 완전한 수로 모든 수를 갖춘 기본이자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을 갖추는 상서로운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십장생도 병풍은 주로 궁궐의 혼례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도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하는 마음을 그림 속에 담아 생활 속 가까이에 두고 즐기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전시는 영상으로 조선시대의 십장생도를 관찰한 후 사슴이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십장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해와 구름이 식물에게 주는 영향을 디지털 체험전시물로 알아보고, 초록 블록을 쌓아올려 소나무 숲을 꾸며봅니다. 바위의 촉감을 느껴보고, 산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산 구조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탐구해 보면서 산위에서 학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폭포 미끄럼틀을 타고 산에서 내려오면 물의 순환 경로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커다란 거북이의 등을 모양퍼즐로 꾸며볼 수 있습니다. 불로초(영지버섯) 모양 종이에 나만의 소망을 기록해 볼 수도 있지요. 이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특별한 체험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림1. 특별전시 초입부



그림2. 특별전시 모습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토우장식 토기에 담긴 신라 사회

최은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토기는 죽은 이의 장례의식에 사용된 제의용 그릇입니다. 토우는 5cm 내외의 아주 작은 크기로, 긴목 항아리의 목과 어깨, 원통모양 그릇 받침의 몸통, 굽다리 접시의 뚜껑 위 등 그릇의 다양한 부위에 부착되어 장식 효과를 냅니다. 주로 5~6세기경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토우장식 토기는 당시 신라의 사회문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경주 황남동 유적은 가장 많은 토우가 발견된 유적으로,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역 확장공사 중에 발견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긴급으로 수습,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토기는 파편으로 발견되었고, 토우는 토기와 떨어진 채로 수습되었습니다. 경주 황남동 유적의 토우는 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표현된 대상의 종류와 조합이 매우 다양하며 표현하는 방식 또한 사실적이고 섬세합니다. 인물·동물·사물모양의 토우들은 함께 어울려 당시 신라인들의 삶 속 여러 장면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물모양 토우 외에 동물모양의 토우는 당시 신라의 동물상을 복원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멸종위기로 보기 어려운 호랑이, 물개, 여우 등을 표현한 토우도 많습니다. 동물모양 토우는 표현된 동물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장수, 영혼의 전달자, 영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토우장식 토기는 모두 죽은 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산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1. 사냥하는 장면을 표현한 토우장식 토기



그림2. 뱀과 개구리를 표현한 토우장식 토기

가야와 왜의 교류

이동관, 107호 가야실 19:00~19:30

삼한시기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일본 열도의 토기인 야요이[弥生] 토기가 높은 빈도로 발견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자료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울산-김해-사천으로 이어지는 동남해안 일대에 집중됩니다.

이후 삼국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왜계 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세기 후반 김해 대성동을 중심으로 성장한 금관가야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열도의 생활용기인 하지키[土師器]계 토기, 바람개비모양 동기, 통모양 동기, 청동 화살촉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키계 토기는 금관가야 권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역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위세품인 다양한 금속제품들은 금관가야와 왜의 정치·외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한편, 5세기 이후 금관가야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5세기 후반 왜계 문물은 한반도 중남부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시기 왜계 문물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한반도의 도질토기와 유사한 스에키[須惠器]계 토기, 철제 무기와 갑옷 등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거제 장목 고분, 고성 송학동 1B-1호 무덤 등 동남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소위 ‘왜계 돌방무덤’과 주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존재입니다. 이 무덤들이 일본 열도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림1. 통모양 동기, 김해 대성동 1호, 삼국, 국립김해박물관



그림2. 짧은목 항아리, 경주 사라리 19호, 삼국, 국립경주박물관



그림3. 원통모양 토기, 나주 신촌리 9호, 국립광주박물관

제73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21일)

불화에서 만나는 인간

윤예지,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사여래도>, 보물, 90x74cm, 조선 1562년, 신수14193.

불화는 인간을 위해 그려진 신들의 그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화에는 주로 인간의 탐욕, 집착,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인 부처와 보살이 그려 집니다. 하지만 불화를 그리고, 감상하고, 그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던 것은 인간이였습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사여래도>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여래도>는 서쪽의 극락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불, 모든 병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약사불,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석가불, 56억 7천만년 뒤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원할 미륵불을 마치 ‘어벤저스’ 처럼 한 폭에 모두 모아 그린 그림입니다. 네 방향에 위치한 네 분의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듯 든든합니다.

중종의 손자인 이종린은 자신을 키워주신 외조부 권찬이 돌아가시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이 그림을 조성했습니다. 이종린은 또한 돌아가신 조모, 처부모 등의 명복과 살아계신 외조모, 부모 등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여래도>는 네 부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히 천수를 누리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낮설지 않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종린의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그림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불화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